

[1] (성서에) 기록된 바와 같이 “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 것이다.” [2] 이렇게 말함은 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는데 —, 사람의 차별을 두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고려하라는 말이다. [3] 적게 필요한 사람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 것이며, [4] 많이 필요한 사람은 연약함에 대해 겸손하고 자비를 받은 데 대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. [5] 이렇게 하면 모든 지체들이 평화 중에 지내게 될 것이다.

[6] 무엇보다도 먼저, 어떠한 이유로든지, 어떤 말이나 혹은 표시로라도 불평의 악을 드러내지 말 것이며, [7] 만일 이런 자가 있거든 더욱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다.